



조석구 / 본회 비상근 이사
(주) 인켈 부회장

경쟁력 회복이 최우선 과제

우리경제는 여러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 대외 의존도가 커져 왔고, 국제간 자본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문제는 항상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각종 수출지원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각 선진국의 보호무역장벽과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한 우리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은 불과 3~4년 전만 해도 세계도처에 Made in Korea의 성과를 높이며 흑자무역의 총아 구실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내태한 사고방식으로 안주한 사이 후발개도국이 맹추격하고 시장 개방화의 거센 물결에 밀려 우리상품의 경쟁력이 점차 상실되어 전 세계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더욱이 우리의 교역 규모가 1,700억달러에 달하여 세계 12위의 무역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줄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 상품이 뒤지게 된 두가지 원인을 들면,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으로 나눌 수 있

다.

첫째, 가격경쟁력면에서, 최근 정부가 지난 3월에 조사한 가격경쟁력 실태를 보면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때 일본은 126, 대만은 93, 중국 등 후발개도국은 77의 수준이라고 되어있다. 이렇듯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경쟁국보다 뒤지고 있는 요인으로 임금상승, 원자재값 인상, 금융비용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고 업계는 무작정 수출단가를 내릴수도 없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채산성을 보장하는 적정단가보다 최소한의 경쟁력 확보와 바이어 이탈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단가만을 제시할 수 밖에 없어 적자수출도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둘째, 비가격경쟁면에서도 우리 상품의 품질과 디자인면이 외국제품과 비교했을때 내세울게 없기는 마찬가지다. 비가격경쟁력에서 우리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뒤지는 것은 기술수준 및 부품산업의 낙후, 숙련기능 인력의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얼마전 KOTRA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상품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외국제품보다

우수하지만 브랜드 및 제품 홍보의 미흡으로 경쟁에 뒤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외 마케팅의 부족을 단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 해외시장정보 부족, 해외마케팅전문인력 부족등으로 자기 브랜드 수출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전제품의 경우 자기브랜드 수출비중이 '90년에 35%에서 작년에는 22%로 크게 줄었다.

금년 상반기만해도 일본은 400억 달러, 독일은 50억달러, 얼마전 우리와 국교를 단절한 대만의 경우 52억 6,0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낸 반면 우리는 오히려 5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선진국과의 기술수준차가 심해 점차 수출시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우리업계는 이러한 중병을 치료하기위해서는 가격과 비가격 경쟁력에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을 따라잡고, 경쟁국, 후발개도국 등을 따돌리려면 품질향상, 기술개발, 원가절감, 자동화 촉진, 해외 마케팅강화, 경영합리화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부는 무역금융의 확대, 설비 투자지원, 수출부대비용의 절감, 금리인하,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업계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해결해야할 과제도 분명히 정해졌다. 우리 모두 내태해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항상 겸허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 회복에 앞장서 'Made in Korea'의 신화재현에 온 힘을 기울여야겠다.